

**통우컬럼**

찾아나서라

매일 서울성전 부지를 보러 다니면서 하나 깨달았다. 그것은 성공은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성전 부지가 알아서 ‘저 찾으셨나요? 여기 대령했습니다.’ 하며 찾아오지 않더라. 내가 발이 부르뜨도록 발품을 팔면서 찾아 나서야 하더라. 성공도, 행복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결코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내 발로, 내 노력으로 찾아 나서야 만날 수 있다. 내가 전도할 영혼을 찾아 세계로 나서는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구해야 얻을 수 있고, 찾으려 다녀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리는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찾아 나서서 바로 만나면 좋으련만, 그게 그리 쉽게 만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허탕 치기가 일쑤다. 서울성전 부지를 단번에 찾으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

성경을 봐도 한 번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한 번 찾았다고 덜컥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두드린다고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수없이 시도해야 만날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낙망하지 말라.’ 하셨다. ‘낙망(落望)’이 성공의 제일 큰 적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은 바보들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된다. 산을 옮기겠다고 곡괭이 들고 땅을 파고 있으니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 싸다. 그래도 낙망치 않고 계속했더니 결국 하늘이 도와 일을 이뤘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포라이’ 소리를 안 들었을까.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면서 2천 번 실패할 때 ‘바보’ 소리를 안 들었을까.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성공을 만났다.

‘기필코 정신’, 이것이 성공 자세이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정신, 이를 때까지 하겠다는 오기가 서린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공자의 루틴이다. 압박감 가에서의 야근,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 뭉친 4인조처럼! 나도 서울성전 부지를 기필코 찾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집을 나선다. 하나님이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걱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성전 이전의 역사가 그러하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니, 하나님이 급하시니 우리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다.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씨에도 목사님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성전 부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셨다. 인천과 서울 여름성경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예수중심교회를 찾아 아이들과 교사들, 봉사

을 통하여 이번 서울 성전 이전의 역사를
앞두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찾을 수 있고 문이 열린다. 가나안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지난한 역사를 거쳐야 했다. 더군다나 약속한 땅에 당도했을 때 무혈 입성은커녕 일일이 싸워 그 땅 거민(居民)을 몰아내야 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다. 절대 공짜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

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에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전을 청할찌니라'(눅 14:28~32).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믿음, 믿음 하며 하나님에 다 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처럼,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부끄럽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말씀



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격려하시곤 다시 성전 부지를 찾아 나가시는 일을 반복하셨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학개서 2장 9절,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목사님

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이고, 나아가 목사님을 통하여 무수히 경험한 사실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은 조금의 걱정도 없어 보인다. 오직 기대에 차 있다. 셋방살이를 마치고, 광야생활을 마치고 거주할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주할 새집에 들어간다는 벅찬 기대만이 넘치는 듯하다. 목사님은 성경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

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돈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 일만 벌여놓고 감당하지 못하면 비웃음만 살뿐이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손가락만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도의 눈물과 무릎부터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러야 마땅하다. 우리가 들어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하나님의 전에 공수(空手)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이제 2주간의 하계산상집회가 시작된다. 40일 작정기도의 마지막 주간을 산상집회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묘하다. 기도의 성산으로 달려가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헌신하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리라.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023 하계산상집회

8월 14일(월)~17일(목), 8월 21일(월)~24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4:7~15)



환경과 나이 탓 말고 꿈을 이뤄보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은 이 말의 주인공인 ‘갈렙’이라는 인물을 파헤쳐봄으로 그의 정신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갈렙은 서열을 깨트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일 때 11명의 동지들과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두령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 지역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민14:9).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나안 정복에 기여한 일등공신이였기에,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듯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처했기에, 갈렙으로는 내심 섭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설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조력했습니다. 그는 평생 2인자로, 평생 조연으로 삶을 살았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도 여호수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사장과 친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뻑하면 ‘야!’ 하며 반말을 해대는 것은 보통이고, 일을 시키면 토를 다는 등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제게 그 내용을 상담하길래 “잘라버려!” 그랬습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단체는 무너집니다. 갈렙이 위대한 것은 똑같이 모세 밑에서 일한 동료지만, 그가 지도자로 섰을 때 그를 지도자로 대접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환경이나 나이 탓을 하지 않고 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민32:12)이라고 소개됩니다. 갈렙은 순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할 정도니 그의 출신성분은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보다 못한 것처럼 취급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갈렙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면 모든 것에서 손을 뗄 나이입니다. 뒷방 노인네가 딱 제격인 나이지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강건함을 자부했

습니다(민14:11).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12). ‘그날’은 어제, 한 달 전, 1년 전이 아닙니다. 무려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값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14:24). 가나안 땅을 제대로 평가한 대가로 하나

님이 주신 약속이었 습니다. 그 약속은 갈렙 인생을 지



총회장 이초석 목사

탱 하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이 있는 자는 절대 포

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쉽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환경을 탓하는 젊은이들! 꿈이 없는 겁니다. 배운 게 없다, 나이가 많다... 하는 자들! 역시 이것 핑계에 불과할 뿐,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에서 노인네라고 놀려나 다니라며 지하철 탑승권도 공짜로 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늙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꿈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진짜 상노인이지만, 저는 갈렙처럼 40대 기력으로 예전보다 더 강건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꿈을 간직했습니다. 정말 긴 세월입니다. 많은 자들이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준비하여 열국의 아비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야곱도 20년 세월을 준비하여 거부가 되

었으며, 요셉도 13년 세월을 준비하여 애굽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15년 세월을 연단 받고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드리나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시간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은 필요할 뿐,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셋째, 갈렙에게는 도전정신이 있었습니

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

이 어떤 땅인

지 너무

나 잘

알

고

있

었

습

니

다. “당신

도 그날에 들

으셨거니와 그곳

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수14:12). 갈렙은 모두가 꺼리는 땅, 쉽지 않은 땅, 전쟁을 해서 쟁취해야 하는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격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아님에도, 그는 가장 험한 땅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전의식, 도전정신입니다.

이 시대에도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필요합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작과 명품은 다 이 정신에서 비롯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입니까? 남이 다 이뤄놓은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도전하고 창조해서 얻어지는 것이면 더욱 값진 것이 아닐까요? 제게 ‘이 산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도전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헤브론 땅만

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냈을 때의 감격과 행복은 도전해보지 않은 자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맛보려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는 없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을 때도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민14:9)고 했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14:12)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수14:13~14).

도전 없이는 미래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롬4:17).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빌4:13).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하신 것이 이 때 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성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갈렙에게 배운 정신을 토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합시다. 배움은 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렙루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2023 서울·인천교회 여름성경캠프

인천교회(8월 4~6일), 서울교회(8월 6~8일),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캠프가 인천교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2023 여름성경캠프가 '세상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수중심교회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하루 동안만 성경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마스크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서울 및 인천교회 각각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다.

2023 여름성경캠프에 유아유치부 및 유초등부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약한 것도 역사한다는 말씀처럼,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캠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이,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아이 등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클 것이라는 증거로 믿었다. 그래서 더욱 선생님들과 함께 금식과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이번 캠프는 '세상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아이들은 진지하게 약한 마귀에 대적하며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야외 물놀이를 즐기고, 아이들이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 성령의 밤을 통해 찬양의 즐거움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시간이 되

었고, 이 시간을 통해 캠프 동안 흘러온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립하였다. 성령세례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곳곳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셨고,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주신 교육부 자모회, 봉사해주신 많은 성도들,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안전할 수 있게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주신 인천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계셨다. 또한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며 성령세례를 주셨다.

교단의 가장 작은 영혼들이지만, 누구보

다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미래는 장차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 예수중심교회의 든든한 재목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은 날로 험하고 악해져도 빛이 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 소망을 품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성경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름성경캠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서울 유아유치부 이삭 전도사

인천 유초등부 최희동 전도사



하나님의 명령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명령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일 것 같은데, 다소 의외지요. 사실 저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단순한 ‘위로와 격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어라면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명령어’이고, 명령하신 분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1985년 TWA 847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피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테러범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을 때, 크나큰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은 수류

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함을 되찾았고, 결국 승객과 승무원, 본인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을 맞보았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수류탄을 보여주며 두려움을 강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죽음의 위협은 늘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물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했습니다. 사실 심적 부담감을 따지면, 그냥 따라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보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급에서 데리고 나오고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진 모세가 더 무겁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기에 그 두려움을 거부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두려움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결말을 향한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신31:6).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

Good News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백작의 작위를 받을 정도로 부족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으나 그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기에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들의 열

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일만 하는 농노들이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기쁨을 누리며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의 소망이나 기쁨은 손에 잡는 순간 끝이 나게 됩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막상 취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허탈감과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 소망이고,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한계효용 감소의 법칙’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감소되고, 나중에는 빵이 보기도 싫어져 내팽개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질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은 뒤에 영생복락의 천국에 가지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장성한 자녀의 기쁨

여덟 살 때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두 살이 되던 해, 교회 성전이 88체육관으로 이전했지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어느덧 열두 살이었던 저는 마흔이 되었고, 마흔이었던 엄마는 예순여덟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또래보다 작고 말랐던 저를 엄마는 늘 안쓰러워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도록 많이 업어주셨어요. 기도처에서 집까지 걸어서 이십여 분 넘는 거리를 엄마 등에 업혀 편하게 다녔더랬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제법 키도 크고 살집도 생겼지만 엄마 눈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장을 보던 엄마의 양손이 무거워 보여 봉지 하나라도 들어드리려고 하면 엄마는 항상 괜찮다 만류하며 무거운 꾸러미를 혼자 들고 가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아르바이트하며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던 이십대의 어느 날, 스스로 장성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장을 보다가 무거운 찬거리들을 제가 들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순순히 건네주더라고요. 드디어 엄마의 짐을 나눠 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요, 엄마의 손가방부터 쇼핑한 물건들까지 전부 제가 듭니다. 엄마가 “무거운 텐데 나눠 들자.”고 하면 “나는 젊잖아~, 힘도 세고.”라고 답해요. 그러면 엄마는 동의한다는 듯 웃으십니다. 이것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생활력이 부족한 아빠 덕분에 엄마는 집안을 책임지고 이끄셨는데요. 외벌이와 다름없이 일하던 시기에도 어려운 형편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홀로 헤쳐 나가셨어요. 없는 형편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제가 취직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자녀 셋을 키우며 생활하느라 생긴 빚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돈을 버는 제게는 작게 느껴지던 금액이라 쉽게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천척 중에 아픈 분이 계시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냐고 상의하시는 엄마를 보면, 이제는 엄마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기

만 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는 자신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키워준 부모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부모에게 보살핌만 받던 연약한 시기를 지나 부모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저의 첫 건축현금은 초등학교 때 모았던 십이삼만 원입니다. 적금 만기로 받은 전 재산을 건축현금으로 드리고 이초석 목사님께 인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오늘은 적금 하나가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릴 때 드렸던 건축현금보다 100배 많은 금액이지요. 그것을 서울 성전 이전을 위해 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보다 많은 축복을 받아왔고 또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 다가오는 9월에는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신은혜

착한 행실

출근길에 유튜브로 2부예배 설교를 들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다.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소하지만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었다. 한 동안 간과해왔던 부분이었다.

어디서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잘 밝혔다. 그러나 일상 중에 크리스천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종종 잊었던 것 같다. 매너 없는 운전자를 보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갔음에도 나 자신은 양보에 익숙지 못했고, 회사 생활에서 처음의 감사보다는 점점 불만의 말이 더 나왔고, 누구와 이해관계를 따질 땐 내가 손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세상의 말을 옳다 여겼다.

그러다 한 뉴스 기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 외제차를 긁어 차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배 중이라며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문제 아니니 그냥 가시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확인 후 연락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고 약간 굼뚱한 것뿐이라고 관찰하며,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도 봐주시라 했다는 훈훈한 기사였다. 얼마 전 어느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주가 아이 부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해 이슈가 된 기사도 함께 비교되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허물이 없고 하나님의 천사 같다는 말을 들었던 다윗,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 중에 금할 자 없다는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천위대장과 간수장, 그리고 바로에게 까지도 매번 모든 것을 위임받았던 요셉. 그들에게는 착한 행실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나는 어떠한 행실의 크리스천일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